

이기는 첫 열매들이 따르는 어린양

성경: 계 14:1-5, 창 5:22-24, 히 11:5-6, 마 24:45-51

I.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첫 열매들이 따르는 어린양이심을 계시한다.

- A. 첫 열매들은 살아 있는 이기는 이들로써 하나님의 밭에서 처음 익은 이들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수확기 전에 거두어져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려질 것이다.
1. 첫 열매들은 하늘에 속한 시온산으로, 곧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장소로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2.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 눅 21:36, 고후 2:10, 호 6:2, 딤후 4:8, 행 26:16.
 3. 휴거는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원수와 싸울 사내아이가 필요하시지만, 그분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첫 열매들을 더욱더 필요로 하신다 — 계 12:5, 14:1, 4하.
- B. 성경은 휴거의 두 방면을 계시하는데, 바로 대환난 전의 이기는 이들의 휴거와 대환난 끝의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이다 — 마 24:40-41, 눅 21:36, 계 3:10, 살전 4:15-17, 계 12:5, 14:1.
- C. 레위기 23장 10절에서 우리는 휴거의 한 유형, 곧 밭에서 익은 수확물의 휴거를 본다 — 마 13:24, 계 14:14-16.
1. 하나님의 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우리는 휴거라 부른다. 이러한 수확은 믿는 이들이 땅에서 이끌려 올라갈 것임을 가리킨다 — 마 13:30, 39하.
 2. 작물의 일부인 첫 열매들은 더 일찍 익고 더 일찍 수확되지만, 작물의 나머지 수확물은 더 늦게 익고 더 늦게 수확된다.
 3. 요한계시록 14장에 따르면 두 종류의 휴거가 있는데, 바로 첫 열매들의 휴거와 수확물의 휴거이다 — 계 14:4하, 14-16.
- D. 첫 열매들은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휴거되어 하나님께 신성한 누림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 출 23:19상, 레 23:10, 비교 요 20:17상.
- E. 첫 열매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린양과 아버지와 하나 되었고 그분들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계 14:1하.
- F. 첫 열매들은 하나님의 작물 중에서 가장 일찍 성숙에 이른 것이다 — 히 5:14-6:1, 고전 2:6, 엡 4:13, 빌 3:15.
1.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어 주는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 롬 12:2, 엡 3:19하.
 2.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하다. 성숙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창 1:26, 롬 5:10, 17, 21.

II. 우리가 어린양을 따라가며 성숙에 이르러 첫 열매들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증거를 지녀야 한다.

A.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증거를 지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 창 5:22-24, 히 11:5-6.

1.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고, 주제넘지 않으며, 자신의 관념이나 갈망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 비교 시 19:12-13, 수 9:14하, 눅 24:15.
2.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 살고 일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 롬 8:4, 13-14, 갈 2:2상, 고후 5:14-15.
3.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자신인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이다 — 고후 5:4, 9.
4.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습관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접촉하며, 끊임 없이 그분을 주입받는 것이다 — 요일 1:3, 빌 4:6, 고후 3:16, 18.
5.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복되신 삼일성을 누리는 것이다 — 유 14, 19-21.
6.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자아와 우리 자아에서 나온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함축한다 — 마 16:24-25, 고후 2:13-14.

B.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 고후 5:7, 히 11:5-6.

1.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을 뜻한다 — 히 11:1-2, 6, 고후 4:13, 18.
 - a.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해 드릴 수 없다 — 히 11:6상.
 - b.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것이다 — 요 8:58, 전 1:2.
 - c.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홀로 유일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 창 5:24, 히 11:5.
 - d.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이다’이시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다 — 눅 9:23.
 - e. 나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분만이 존재하셔야 한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 갈 2:20.
 - f. 주님은 다소의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에게 “나는 ...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 — 행 9:5.
 - 1) 주님은 “나는 위대한 ‘-이다’이다. 나는 ‘-이다’이다. 너는 내가 ‘-이다’이고 너는 ‘아니다’임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2) 결국, 사울은 끝났고 바울이 등장했다 — 행 13:9.

- g. 믿음은 이것이다—“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권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여!” — 존 넬슨 다비.
- 2.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 히 11:6, 창 15:1, 빌 3:8, 14.
 - a. 에녹이 받은 보상은 생명의 가장 높은 단계, 곧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 히 11:5상, 고후 5:4, 롬 8:6, 10-11, 5:17.
 - b.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시 27:4, 8, 42:1-2, 43:4, 73:25, 119:2, 10.
- C. 첫 번째로 휴거된 사람인 에녹은 살아 있는 동안 휴거될 모든 이기는 이들을 대표한다 — 마 24:37-51, 계 14:1, 눅 21:34-36.
 - 1.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에 달려 있다 — 히 6:1상.
 - 2. 에녹은 삼백 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 올라가서,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 창 5:24, 비교 아 8:5상.

Ⅲ. 어린양을 따라가며 성숙에 이르러 첫 열매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맡기신 봉사를 신실히 수행하여 그분의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이신 하나님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는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 마 24:45-51.

- A. 하나님은 가정이 있으시고 가정 관리 곧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이 경륜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분 자신을 양식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 딤후 1:4, 3:15, 엡 2:19.
- B. 하나님은 그분의 가정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을 가정 관리자, 청지기, 공급의 통로로 세우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셨다 — 마 24:45, 고전 9:17, 엡 3:2, 고전 4:1, 벧전 4:10, 빌 1:25.
- C.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교회 안의 믿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으로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현되시고 실재화되신다 — 요 6:57, 63, 68, 행 5:20.
 - 1.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주님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맛보고 누리야 한다 — 엡 6:17-18, 시 119:15, 겔 3:1-4.
 - 2.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 — 행 6:4, 고후 3:6, 8, 요 7:37-39, 비교 히 7:25, 8:2.
- D.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현시대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 — 마 24:48, 딤후 4:8, 10, 비교 행 26:16.
 - 1. 우리는 반드시 탐심을 주의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해야 한다 — 눅 12:15-20, 고후 6:10, 엡 3:8.

2. “룻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 눅 17:31-32, 비교 롬 1:21, 25.
 3.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덧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반드시 깨어서 간구해야 한다 — 눅 21:34-36, 비교 마 2:3.
- E. 우리의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은 동료 믿는 이들을 학대하는 것이다 — 마 24:49상, 18:3-7, 행 9:4.
1.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유죄판결 하지 말고, 그들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 눅 6:37, 엡 4:31-32.
 2.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 자신보다 그들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 고전 6:10, 빌 2:2-3, 29.
 - a. 형제를 헐뜯는 것은 폭언으로 모질게 그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다 — 비교 눅 17:2.
 - b. 헐뜯는 말을 받아 주는 사람들은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 그러한 말은 몸을 손상한다.
 - c.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권위를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3.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노예로서 그들을 섬겨,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 벰전 5:3, 마 20:25-28.
 - a.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성도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거나 성도들에게 어디로 이주하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와 지배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다.
 - b.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몸 안에서 합당한 교통을 가지도록 격려하지 않은 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께 큰 모독이 된다!
- F.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로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다 — 마 24:49하, 비교 엡 5:18.
1. 믿는 이들은 신성한 본성과 거룩한 위치가 있으므로, 믿지 않는 이들과 명예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혼이나 사업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의 모든 친밀한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고후 6:14, 고전 15:33, 비교 잠 13:20.
 2. 우리는 반드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 딤후 2:22.